

취임사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윤 임 중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가 암울했다고 표현되는 1960년대, 특히 산업보건분야는 황무지와 다름없던 1963년 11월22일 대한산업보건협회는 탄생되었고, 그후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본 협회는 기쁨보다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본 협회가 초창기에 비하여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커다란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이 나라 근로자의 건강을 내 것인양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피 오신 최영태 전 회장님, 조규상 명예회장님 그리고 이승한 전 회장님을 중심으로 협회 임직원 모든 분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이며 기업과 근로자 여러분들이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당국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라 믿어집니다.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킴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과 국가 발전에 기여케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결코 아니며 단시일내에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사정 그리고 산업보건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다같이 참고 견디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아낌없이 지불한 오랜 후에야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황무지라 표현한 1960년대와 오늘의 우리나라 산업보건 상태를 비교하면 산업보건사업이 얼마나 오랜 시일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지식과 경험 그리고 능력도 없으면서 본 협회를 맡게 되어 임직원 여러분들과 산업보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주위 모든 분에게 송구스런 마음 가눌 수 없습니다. 다만 저의 주위에는 여러분이 제시고 여러분의 지식, 경험 그리고 능력은 저의 부족함을 충분히 메꾸어 주실 것으로 믿고 대한산업보건협회가 더욱 발전하여 근로자와 기업주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협회가 되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협회 임직원 여러분과 우리나라 산업보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모든 분의 지속적인 조언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정중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1999년 3월